

# OECD/DAC

## 고위급회의(5.20-21) 결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은 5.20(화)~21(수) 이틀간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OECD/DAC 고위급회의(High Level Meeting: HLM)에 참석하였다. 금번 고위급회의는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2005) 이행을 위해 공여국의 정책 메시지와 수원국이 요구하는 6가지 원조효과 제고 이슈에 대한 공여국의 입장을 조율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DAC 비회원국으로서는 유일하게 OECD 원조개혁그룹(Reflection Group)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는 2010년으로 예정된 우리의 DAC 가입을 OECD측이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나라를 DAC 비회원국의 대표로서 개혁그룹에 참여하도록 하는 DAC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리 : 정책연구실]

### I. 핵심요지

- OECD는 향후 1년6개월 동안 DAC개혁을 주도할 「원조개혁그룹(Reflection Group)」에 우리나라를 포함, DAC회원국 7개국을 발표하고, 동 개혁그룹을 중심으로 향후 10~15년간 DAC의 역할과 원조정책체제를 개편하는 작업을 최종확정하였음.
- 김성환 차관은 우리나라가 DAC 개혁그룹에 참가하게 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향후 기존 공여국과 신흥공여국간의 가교역할과

함께 적실성 높은 개발원조 정책 발굴 등 개혁 작업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김 차관은 국제식량위기 대치방안 세션에서 OECD/DAC이 국제적 식량문제를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주도하기 위해 OECD/DAC내에 식량원조 작업반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는바, DAC의장은 동 제안에 공감하고 향후 DAC개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피력함.

- 금번 고위급회의는 원조효과성 제고 및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2005) 이행을 위해 공여국의 정책 메시지와 수원국이 요구하는 수원국 개발역량 등 6대 원조효과 제고 이슈에 대한 공여국의 입장을 조율하고, 9월 아크라 회의까지 구체적 조치(action) 사항을 도출, 12월 개발재원에 관한 도하회의와 연계하여 실질적 기여를 해 나가기로 함.

## II. 관찰 및 평가

1. 우리나라가 DAC 비회원국으로서는 유일하게 OECD 원조개혁그룹에 참여하게 된 것은 2010년으로 예정된 우리의 DAC 가입을 OECD측이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나라를 DAC 비회원국의 대표로서 개혁그룹에 참여하도록 하는 DAC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이번 DAC 원조개혁그룹 참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가 DAC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여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DAC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국제원조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사회에서 공여국으로서의 우리 입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임.

2. 향후 식량위기 및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빈곤 퇴치를 중심으로 국제원조체제의 방향이 형성되고 있는 바, 우리 정부의 대 아프리카 원조확

대를 통한 천년개발목표(MDGs)달성 및 에너지 외교 활성화 등 다양한 전략적 목표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3. 금번 DAC 고위급 회의 시 중국, 인도 등 거대 신흥공여국의 등장과 이에 대응한 국제원조체제의 재편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는바, 개발과 에너지 확보의 연계, 기후변화 문제의 개발정책과의 통합(integration), 국제안보문제와 원조정책간의 연계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적 준비(political readiness)를 점차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봄.

## III. 상세 논의 내용

### 1. 2008 개발원조 의제협의

- DAC 의장은 MDGs 달성 중간 점검 해인 금년도 하반기에 아크라고위급포럼, UN개발협력포럼(DCF), UN-MDG Summit 및 도하개발재원고위급회의가 연속해서 개최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국제사회는 동 주요 회의 시 공여국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를 도출, 원조효과성 제고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가야 함을 강조.

- EU 개발장관은 국제원조사회는 원조관련 부정적인 측면(frustration)과 희망적인 상황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많은 공여국이 ODA 관련 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기여 약정(commitment)을 실현시킬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년 개발 프로그램(multi year program)이 필요하다고 제안.

- 원조효과 작업반 의장 등은 최근 진행된 2008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대외원조의 여러 분야 중 원조의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및 공여국간 원조조화(harmonization)부문의 진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
- 일본 측은 EU가 제안한 원조분업(Division of Labor)이 유럽 중심적 시각에서 도출되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각 공여국이 실제 원조제공의 경험과 각 지역마다의 특성을 감안한 원조정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
- 미국 원조청(USAID) 청장은 EU가 제시한 원조분업이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역사적이며, 실질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각국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원조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

## 2. 개발협력 전망과 DAC원조개혁그룹 구성

- 영국 국제개발부(DFID) 차관은 중국, 인도 등

새로운 공여국의 등장, 원조사회에서 수원국의 입장 강화 등 국제원조체제의 변화에 대해 DAC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하였으며, 또한 미국은 그간 DAC 역할을 평가하면서 최근 non-DAC 국가의 비중 확대와 관련, 이들 국가와 투명한 정보교환(transparent information exchange)이 필요하다고 지적.

- DAC 의장은 국제원조체제 개편에 대한 DAC의 정책방향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원조효과성 제고, 국제 원조규범에 대한 적실성 강화, DAC의 적극적 대외관계 확대(outreach)등을 DAC 원조체제 개혁작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

## 3. 식량가격 급등

- 미국, 뱅기에, 세계은행, UN 등은 식량가격 급등문제와 관련, 단기적으로 식량위기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농업연구 투자확대, 농작물에 대한 바이오기술 사용 인정 등을 통해 식량생산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농업분야에서 자유무역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 이에 대해 EU는 단기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나, 원조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은 단기적이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식량생산 능력의 강화 및 개도국 식량원조 확대

를 추진하는 것이 주요하다는 점을 강조.

- 한국 측은 식량가격 급등에 대한 단기적 처방(인도적 지원)과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식량문제를 개발협력의 핵심의제(a key task)로 유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개발도상국의 식량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문제 필요성을 지적함. 아울러,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도출을 위해 DAC 산하에 농업원조(agricultural aid)를 위한 작업반 설치를 제안함.

#### 4. 기후변화, 개발협력, 전략적 환경 평가

- 일본은 ‘지속가능한 국제사회(global sustainable society)’를 만들기 위해 ‘공동되지만 차별적인 책임(a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에 따라 선진국 및 개도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
  - 특히 ‘종합적인 환경보호 증진(promotion of comprehensive environment conservation)’,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1/2로 감축하는 목표 설정’, ‘국가, NGO, 국제기구간의 파트너십 확대’ 등을 위하여 100억불을 출연, ‘Cool Earth Programme’ 등 기후변화 관련 원조방향을 설명하고 DAC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 핀란드, 미국 등은 아울러, 2004 DAC 고위급 회의에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서 얻어진 배출권은 전체 ODA 실적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에 대한 검토를 당초 2007년까지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2010년까지 동 사안에 대한 검토를 연기한다는 DAC 결정을 지지.

#### 5. 분쟁국·취약국에 대한 범정부적 접근

- 영국 등 각 공여국 대표들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북한 등 취약국가에 대해서는 개발원조, 대외관계, 안보 분야를 총 망라하여 국내 정부 부처 간 범정부적 협력과 취약국 및 분쟁국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함.
  - 특히 전후 복구국가에 대해서는 외교 분야와 국방 분야가 공동으로 원조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국제개발원조제공시 이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 DAC회원국은 상기 범정부적 접근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금년 말 스위스 정부 주최로 고위급 포럼을 개최기로 합의하고 세부 일정 및 관련 사항을 DAC에서 논의하기로 함.

[자료 : 주오이시디대표부]